

‘개미’의 역발상... 코로나 대란속 ‘빚내서 사자’ 10.5조

코로나19 공포로 변동성 확대 코스피 2070선까지 무너져 개인투자자 ‘사자세’ 주식 배팅 인버스 ETF 신중한 접근 필요 위험성 인지하고 단타로 이용



코스피가 83.8포인트(3.87%) 하락한 2,079.04로 장을 마감한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전염병 이슈로 인한 충격여파가 가시면 다시 증시가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까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총10조5435억원으로 집계됐다. 10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 증가율은 0.59%에 달했다. 지난달 23일까지 9조원대에 머물렀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되자 꾸준히 불어나 줄곧 10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상황에서도 잔고는 상승했

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을 말한다. 잔고가 많다는 것은 빚을 낼 정도로 주가 상승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잔고가 위축되면 그만큼 증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얘기도. 투자자들이 빚을

내 산 주식이 주가 하락 여파로 반대매매 물량으로 출회되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빠르게 감소한다. 개인투자자는 줄곧 ‘사자세’로 일관 중이다. 지난 24일 코로나 공포 속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6077억원어치를 순매수한데 이어 25일에도 7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691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역추세 전략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하방 지지선으로 생각됐던 2100선이 단숨에 무너지며 저평가 매력에 부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피 하락에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이틀간 온도차는 극심했다. 인버스 ETF는 코스피지수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200개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한다. 코스피20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률은 오르는 투자전략이다. 반대로 레버리지 ETF의 경우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률을 두 배 수준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손실 폭도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코로나 공포로 지수가 2070선까지 4% 가까이 급락했던 24일 종가 기준 K-BSTAR 200선물인버스2X(7.64%), TIGER 200선물인버스2X(7.7%), KOD

EX 200선물인버스2X(7.35%) 등이 7%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진정세가 되찾은 25일 모두 2%대 하락을 겪었다.

당장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버스에 투자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 이슈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인 만큼 진정세에 따라 언제든 지수 추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인버스 ETF에서 난 적자는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지수는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 모두 유용한 투자 상품이지만 투자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투자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금감원, 대손충당·내부회계 등 중점 점검

사업보고서 점검예고

감독당국이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와 재무정보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개사다.

재무사항은 14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 보수와 감사의견 기재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등 9개 항목을 살펴본다.

재무공시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주식’에 신(新)K-IFRS기준서(제1116호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등을 확인하며, 그 밖에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부

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등도 점검한다.

비재무공시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사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자산운용, 中헬스케어 투자펀드 출시

“中 급속 고령화에 시장 잠재력 충분”

한화자산운용은 다음 달 중국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한화차이나셀렉트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중국, 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에 고령 인구가 늘고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가우정지(高正姬)차이나에쿼티팀장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가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높다”며 “중국의 의료시장도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차이나헬스케어 시장 및 펀드 소개’ 기자회견에서 가우정지(高正姬) 한화자산운용 차이나에쿼티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소득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8년 기준 중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1조7800억위안으로 최근 15년간 연 15~20%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약품 심사, 병원 체계, 의료보험 체계 등 중국 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임직원·입주민·건설근로자 안전 철저 관리”

LH, 코로나19 비상점검회의 대응상황·향후 계획 등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4일 LH 진주 본사에서 서울지역본부 등 12개 본부, 361개 공사현장 및 입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CEO(최고경영자) 주재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위기경보 격상 등 비상 국면을 맞이하면서 LH 임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손소독제 사용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더불어 본사와 현장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임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행동요령 및 대응수칙을 전파하고, 일상접촉 우려 직원에 대한 밀착관리를 시행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코로나19 관련, CEO주재 비상점검회의’에서 변창흠 LH 사장(테이블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히, 전국적 이동이 잦고 상담·조사 등 대면업무가 많은 공사 업무특성에 따라 위험지역 출장·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객 내방업무는 가급적 전화 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세미나·회식 등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LH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임직원 유증상자 발생유무, 임대단지의 입주민 지원 상황,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무실 폐쇄 및 방역처리, 필수요원 비상근무 시행 등의 방안과 판매·보상·공사관리·임대운영 등 대민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체계를 확인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임직원, 입주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첨단IT 투자 10% 수익... 설정 1000억 ‘홀쩍’

미래에셋 코어테크펀드 인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펀드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가 설정액 1000억원을 넘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국내 IT 관련 기업 중 핵심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에 투자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산업 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투자대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T기업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편입 종목은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

율,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모두 포함되며 주로 반도체, 2차전지, 5G 통신장비 등 IT 관련 종목으로 구성한다.

단기적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리밸런싱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기준 삼성전자 21.58%, SK하이닉스 6.30%, 테스나 2.74%, 삼성SDI 2.72%, 이오테크닉스 2.63% 등을 편입했다.

지난해 10월 설정이후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누적수익률 9.34%를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ETF 제외) 중 가장 많은 720억원이 유입됐다. /송태화 기자